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4093 Seattle, Wash. 98104
Sung Kil Kim Publisher
Editor

VOL. 3 NO. 5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JULY, 1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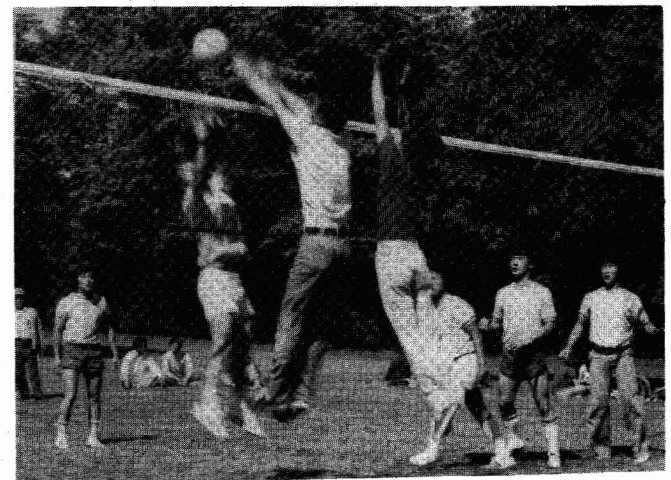
민속예술사절단 씨아를 공연



미국 독립 200주년을 축하하는 민간 사절 한국 민속 예술단이 7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씨아틀에서 공연하게 된다. 이 봉사단장등 7명의 임원진과 50여명의 단원으로 구성된 이 민속 예술단은 무용가 김백봉, 김문숙, 송범, 한순옥씨등과 판소리 김소희씨등 우리귀에 익은 한국 민속 대표자들이 미국에서 벌라게 될 오색무드는 주로 미국인을 상대로 공연케 될 것인데 많은 교민의 참석을 바라고 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해리스버그에서 첫 공연을 성공적으로 갖고 필라델피아, 와싱턴 D.C., 뉴욕, 보스턴, 시카고등을 거쳐 이곳에 7월 25일 도착할 예정인데 공연 장소와 시간은 다음과 같다.

씨아틀 - 밴쿠버 야유회 성료

지난 67년 부터 해마다 거행되어 온 씨아틀과 밴쿠버간의 야유회는 금년으로 10돌을 맞이하여 씨아틀 우드랜드공원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본 야유회를 통해 그동안 양지역의 많은 교포들이 서로 사귀어 있었고 일년에 한번씩 국경을 넘어 자리를 함께 하여 운동경기 뿐 아니라 생활정보도 나눌수 있어 호찬을 받아오는 한인회 행사로서 금년에는 밴쿠버에서 일기불순과 까다로운 미국 입국수속 절차로 많은 희망자가 참석치 못하여 안타까웠다. 약 450명이 참석한 이날 경기에서 씨아틀 팀이 작별 우승팀인 밴쿠버를 물리치고 우승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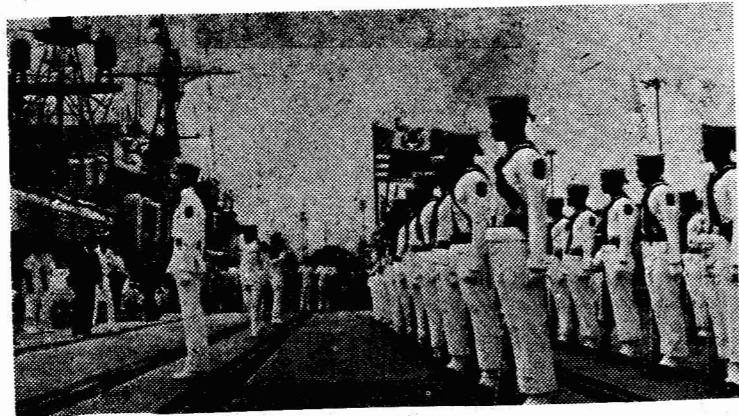


일시 : 1976년 7월 27일 (화요일)
7월 28일 (수요일)
양일간 오후 8:00
장소 : Paramount Northwest Theatre
910 Pine St., Seattle, Wash.
입장료 : \$ 3.00, \$ 2.50, \$ 2.00
(12세 미만은 반액)
주최 : 씨아틀소재 무역진흥공사(KOTRA)

순회 영사 업무

대민 업무처리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지난 7월 26일(토)과 27일(일) 양일간에 걸쳐 시애틀과 타코마에 김홍수 상항 총영사관 영사가 현지에서 민원상담 영사업무를 실시하여 136건의 민원서류를 당일 현지에서 처리한 바 있다.

출생신고에서부터 일시 귀국신고, 여권 유효기간 연장과 미국인의 한국비자신청이외에도 영사관 업무에 관한 제반 면담도 환영한 이 날에 약 230명의 교민들이 시애틀 소재 한인회 사무실과 타코마 부인회 사무실을 방문한 바 있다. 이 날 방문한 교민 저마다 「주말에도 불과하고 이렇게 찾아와 수고를 해주니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하루속히 이 지역에도 영사관이 있어야 한다」고 영사관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기도 하였다. 총영사관에서는 와싱턴주 외에도 타관할 10개주 지역에도 앞으로 순회영사 업무를 시도 할것인데 교민들 가운데 민원상담에 협조해 줄수 있는 봉사자를 찾고 있다. 총영사관과 지역교민간의 민원업무의 일원화를 위해 봉사 자원자들에게 민원 안내 지킴과 최근 여권관계 구비서류등을 보내어 영사업무의 효율과 편리를 도모코려 하는데 봉사를 희망하는 분은 한인회장 김성길씨(784-4492)에게 알려 주시기 바란다.



경축 사절 한국 해군 함대 밴쿠버에 입항

고 중립 준장이 인솔하는 한국 해군 함대 증북호와 전함 호가 미 독립 200주년 기념행사를 경축하기 위하여 미국 각처를 순회하다가 지난 7월 9일 부터 11일까지 3일간 캐나다 밴쿠버에 입항하여 함대 일반공개와 영화상영 Seafair 행사에 참가한 바 있다. 밴쿠버 한인들은 이 들을 위해 7월 10일(토) Stanley Park에서 환영 불고기 파티를 풍성하게 베풀면서 경하여 시애틀의 한인교민들을 초청하는 야량을 베풀기도 하였다.

원고 모집

본 한인회보에 실릴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포사회에 바람직한 제안, 미국생활에서의 경험등 교포사회에 도움이 될 글과시, 수필등을 보내 주시면 심의껏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회보에 실릴 광고도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발송처 - P.O. Box 4093
Seattle, Wa. 98104
문의전화 - 624-8930
784-4492

헨리 장 여행사

• 초청 이민 수속안내 • 외국 방문 특별할인(매주)
• 항공표 월부판매 • 이민권 문제 무료상담

NORTHWEST. 대한항공. JAPAN AIRLINE

(206) 523-7057 (24hrs)

Henry Chang Travel Service

- 이민권 문제와 민원 업무 안내란 -

이번 달에는 "여권 유효기간 연장"에 대해서 기재한다. 지난 6월 27일에 김영사님께서 주고 가신 신청서는 전보다 꼭 간소화되어서 편리하게 되었다.

- 1) 증빙서류
 - A. 여권 기재 사항 변경 신청서
 - B. 여권
 - C. 수수료 3불
 - D. 반신용 우표가 붙고 주소가 써있는 봉투.

2) 참고 사항

- A. 여행 목적이 변경되었을 경우, 예를 들어 방문이나 유학으로 왔다가 영주권을 받았을 경우는 영주권의 앞뒤를 사본하고 또 백지이다 신 청인의 목적이 변경된 경위를 자세히 기재하여 서명한 후 공증을 받아서 같이 첨부해야 한다.
- B. 기존 여성은 한글 성명란에 본 이름(남편의 이름이 아닌)을 써야하고 영문 성명란에는 여권에 있는 이름을 써야하고 (미국에서 편 의상 부르는 미국 이름은 안됨) 성은 남편의 성을 괄호안에 쓴다.
- C. 여권은 5년만에 갱신해야 하며 기한이 지난 여권은 법적으로 죽은 여권이므로 급히 한국에 나가야 할 경우에 애로를 겪게 되며 5년 후에 교포 여권으로 바꾸려 해도 일단 죽은 여권을 살려야 하기 때문에 기한이 지나기 전에 미리 연장하는것이 좋다.

※ 1간 민원 서류의 양식이 여러번 바뀌었는 관계로 봉사부에서 배부한 서류와 안내해 드린 말씀중에 혼동이 있는것을 사과드립니다. 1간 봉사부에서만 배부하던 민원 서류를 교민 여러분의 편의 도모상 봉사부(523-7057), 타코마와 시애틀 지역의 각 여행사인 김의 여행사, 한국 여행사, 또 헨리 장 여행사에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교회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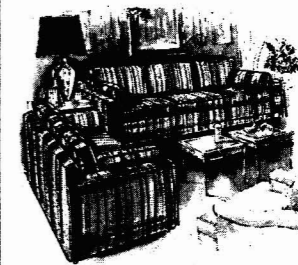


- ◎ 제일 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
새 교회를 Northgate 근처에 마련 (11508 Roosevelt Way N.E., Seattle, Wash.) 하고 7월 9일부터 11일까지 기쁜 부흥회를 갖고 7월 10일 오후 3시에 입당예배를 가졌다.
- ◎ 시락 장노교회 (담임: 안성진 목사, 1242 Des Moines Way S., Seattle, Wash.)
6월 20일 시카고에서 모신 신임 안성진 목사를 모시고 기쁨의 첫 예배를 보았다.

<소식>

- ▶ 서울 대학교 상과대학 동창회에서는 지난 6월 12일 야유회를 Camano Island에서 갖고 새 회장에 Mr. Louis S. Shim을 선출하였다.
- ▶ 양녀 원협
그실에서 5살 이내의 여아를 미국 가정에서 구하는데 성실껏 사랑하겠다고 한다. 연락처는 838-1335 Mr. Chartland.

천에 하는 고객 여러분.
저희 가구점에서는 친절과 신용 그리고 외상거래로 고객 여러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부디 왕림 하시어 저희들의 좋은 재품들을 선정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신형 가가
 - 카 페 트
 - T. V. SYLVANIA
 - 각종 전기 제품 HOTPOINT
 - 침구 및 매트리스
- SERTA

Hess Furniture

3830 SOUTH M. ST.
TACOMA, GR 4-8441

DAILY 9 A.M. TO 6 P.M.
Closed SUNDAY

※ 신속, 안전으로 무료운반.



봉사

오 정숙

어느 해를 불문하고 한인회의 임원이 된 부인들이 다 같이 느끼는 심정이겠지만 미국의 직장생활이 바쁘고 고달픈데다가 한인회 일을 같이 보려면 가정에서의 시간을 많이 빼앗겨 되고 따라서 이시 임기가 지나기를 바르게 되는 것 같다. 이번에 봉사 부장 일을 맡아서 보고 있는 아빠역시 바쁜 사람이어서 봉사부 사업의 하나인 한인회보에 실리는 "생활 안내란"과 "이민권 문제와 민원업무 안내란"의 기사를 쓰는 일을 돕고 또 상담권좌를 받다 보면 나까지 바쁘기 마련이다.

오늘은 상형에서 김 영사님께서 오셔서 일일 영사관 업무를 보시기로 되어 있어서 교회에 갔다가 직접 사무실로 가서 서류를 배부하고 접수하는 일을 도왔다. 민원서류를 영사관에 보내면 무엇이 잘못되었고 "빠꾸"를 당해서 다시 써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고, 한번 이런 경험을 한 후에는 서류를 작성해서 영사관에 보내기를 두려워하고 귀찮아하던 교민들이 오늘 즉석에서 간단하고 쉽게 서류를 결제받고 좋은 기분으로 사무실을 떠나는 것을 보았다.

아빠가 임원이 되기 전에 나는 한인회가 하는 일에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것 같다. 회비도 생각이 나키면 내고 또 내지 않고 보낸 해도 많은것 같다. 한인회와 우리 개인과의 관계를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일도 없었고 회보를 받아서 읽어도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았었다. 그러나 회보가 한번 나오기까지는 임원 여러분이 기사를 접수하고, 쓰고, 수정하고, 편집하기, 또 배부하기 위하여 퇴근한 후에 집에 들리지도 못하고 직접 사무실로 가서 밤이 늦도록 일을 한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미약하고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고 있어서 이상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형편에 있지만 매번 회장단은 대외적, 대내적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고 있으며 정력과 시간을 희생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우리 한인들은 미국 시민권을 받은 후에도 다른 동양인들에 비해서 선거에 참여하는 수가 극소수이어서 주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도움을 받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한인회관 건립을 위해서 다년간 위원들, 이사님들, 그리고 임원들이 애를 써온 결과로, 회원중에는 나와 같이 섬의와 관심이 부족한 회원이 있지만도 11,000불이 넘는 회관 건립 기금이 현재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영사관 업무를 5시에 마친후에 사무실에서 일을 돕던 몇몇분이 영사님을 모시고 미국 서북부의 여러 한인회와 그 사회에 대해 비교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인회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봉사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지저분해진 사무실을 대강 정돈하고 집에 오니 7시 반이 되었다. 집에서 살림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잠시간 긴장해 있다가 집에 와서 편하게 있으니 내 세상 같다. 아이들이 어디를 갔다 왔냐고, 사랑을 사왔냐고 달려든다. 분반 예절일을 두 달 앞둔 나이고로 다리에 쥐가 날 지경이지만 조마한 힘이나마 봉사했다는 데 대한 기쁨이 피곤을 잊게 한다.

집매매는.....
안 병 용 부동산으로
씨애틀 838-2이0 . 타코마 927-2277

五洲食品店
FIVE SEAS
집에서 만든 순 한국식 음식
• Food Stamp 취급
• 주문 HH 수
상점시간
월요일 - 토요일 10:30 - 7:00
토요일 - 일요일 10:30 - 6:00
주소 543 N.E. Northgate Way SEATTLE WA, 98125 TEL: 325-6850, 525-2925

남서지역
부동산
주력 아파트 건물
식당 상점 로지
DEL BIANCO REALTY Inc.
9455 35th SW Seattle, Washington 98148
진 김 JEAN KIM Associate (206) 932-1515
Res. (206) 932-3595

생활 안내란

여름이 왔다. 어린이들은 방학이라 집에서 쉬며 좋아한다. 3개월이란 긴 방학기간을 보다 유쾌하고 즐겁게 보내도록 돕기 위해서 이 달에는 어린이들이 참가할 수 있는 여러가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1) 수영강습
시에서 경영하는 여러 곳에 있는 수영장에서 연령과 수영 정도를 구분해서 적십자에서 파송된 선생님들이 수영을 가르치고 있다. 시일과 가격은 각 수영장마다 다르나 대개는 3주간 동안의 강습기간에 8회~12회에 걸쳐 강습하고 있으며 가격은 7불~8불 가량이다. 어떤 수영장에서는 이미 강습을 시작한 테도 있으나 수영 강습이 두번 혹은 세번 반복되기 때문에 편리한 시간을 택해서 등록하는 날을 미리 알아 두었다가 등록할 수 있다.

2) Y.M.C.A. 와 Y.W.C.A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라 여러가지 재미있는 강습과 캠프를 주최하고 있다.
3) A. Seattle Center (씨애틀 센터)에서는 2살~12살난 생일을 맞은 어린이(생일이 그전 주간이거나 그 다음 주간사이)를 위해서 매주 토요일 11시부터 12시 사이에 Food Circus Court라는 건물 안에서 생일 맞은 어린이의 가족과 친구를 초청한다. 부모님은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에 가서 생일 잔치를 할 자리를 예약해야 하고 음식은 각자가 갖고 가야 하나 1시간에 어린이들을 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고 풍선을 나누어 준다고 한다.

B. Seattle Center에서 매주 토요일 1시에 Food Circus Court에서 어린이들을 즐겁게 해 주는 각종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

4) Pacific Science Center에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해서 Mars (화성)을 주제로 한 강의, 영화, 그리고 전시회를 갖는다고 한다.

5) 시립도서관 분관마다 방학동안에 책읽기 클럽을 조직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각 도서관주최로 계획되고 있다고 한다.

* 봉사부에서는 교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일을 찾고 있습니다. 봉사부 자체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전문가에게 위탁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서슴치 마시고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흥역이나 차편제공등 봉사부를 도와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시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봉사부장, 레러장 (523-7057)으로 문의해 주시면 그 지역에 가까운 장소와 시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한인 회비 납부를 요망합니다.

와싱턴주 한인회는 와싱턴주에 살고 있는 한인교포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유익하게 쓰일 한인회비 납부를 모망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비가 쓰여지는 용도는 무한합니다. 한인회는 여러가지 새롭고 건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재정난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보내주시는 회비는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서로 도우며 생활할상을 가져올 수 있는데 필요할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976년도 한인회비를 미쳐 못 내신분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 내신 분에겐 영수증을 보내 드리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편리성 대달 발행되는 한인회보에 그 영단을 발표함으로써 영수증을 대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발송처: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4093
Seattle, Wa. 98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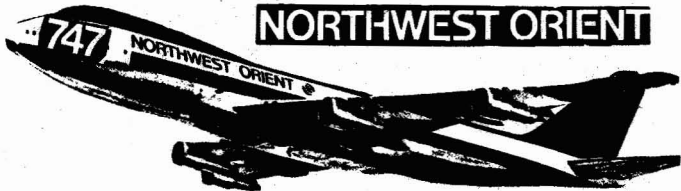
필신 (PAULL SHIN) 부동산
firstline properties inc.
Member of North End Brokers Assn.
* 부동산을 매매 하실 때는 신용과 많은 이의를 보장하는 필신에게 문의 바랍니다.
신호번호 PAULL HO BOM SHIN Sales Representative
PHONE Bus. 365-6363 11514 15th Avenue N.E. Res. 778-1972 Seattle, Washington 98125

76년도 회비 납부자

53.	박 재인	\$ 5.00
54.	김 일소	5.00
55.	이 순표	5.00
56.	정 하경	20.00
57.	김 면화	5.00

58.	박 혜숙	5.00
59.	임 영근	10.00
60.	고 창열	10.00
61.	김 종구	10.00
62.	Louis Shim	10.00
63.	김 정도	5.00

- 최저요금, 친절봉사
- 이민수속 무료봉사
- 국내의 항공표 판매
- 매주 특별할인단체 모국방문



NORTHWEST ORIENT


대표: 김 창성

624-2227
624-2228
RES. 364-9934

Lloyd Bldg. - Room 606
503 Stewart St., Seattle, Wash. 98101

여행의 상담자

김익이행사



SEATTLE-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4093 SEATTLE, WASH. 98104

NONPROFIT ORG.
U.S. POSTAGE
PAID
SEATTLE, WA.
PERMIT #919

Dr. Man Sop Han
12904 SE. 45th Lane
Bellevue, WA. 98006